

## 67장 -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 (1)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 (2)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 (3)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 (4)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 314장 -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1)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옆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 (2) 이 전엔 세상 낙 기뻐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 (3)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 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12월 10일(월) 기도 담당 : 이광현 집사

2018년 12월 8일(토)

## 이른아침예배

인도 : 박세훈 목사

예배를 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67장 ..... 다 같 이  
기 도 ..... 전해용 집사  
성 경 봉 독 ..... 시편 126편 1~6절 ..... 인 도 자  
찬 양 ..... 새벽찬양대  
설 교 ..... 『꿈꾸는 것 같았도다』 ..... 박세훈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같 이  
찬 송 ..... 314장 ..... 다 같 이  
축 도 ..... 설 교 자

### 📖 오늘의 말씀 <시 126:1~6>

- 1)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 2)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 3)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 4)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 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 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12월 8일(토)

###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없는 도전과 때론 좌절의 어둔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실 구원의 날을 도리어 고대하며 소망 없는 영혼들을 일깨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131년의 긴 역사 동안 새문안 교회를 주님 뜻으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새 성전 건축의 전 과정을 지켜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완공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며, 온 성도 한 마음 안에서 주님 전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날마다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성령 충만의 삶으로 이끄셔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 이 땅의 주인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온 국민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명 주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생명의 말씀을 즐거이 전하게 하옵소서.

병상 중에서 긴 시간 고통받는 환우들과 힘겨운 항암치료에 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속히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